

‘굴욕’ BMW

‘야심’ 현대차

520d

화재 여파 불안감...판매량 한달새 40% ‘뚝’
베스트셀링 모델 10위권서 처음 밀려나

BMW 판매량이 40% 가까이 급감했다. 차량 화재 여파로 소비자들이 외면하면서다. 올 들어 베스트셀링(최다판매) 모델 10위권에 줄곧 이름을 올렸던 520d는 처음으로 최다판매 모델에서 빠졌다. 국내 차량 중에는 싼타페가 지난달에만 9000대가 넘게 팔리며 가장 많이 팔린 모델로 꼽혔다. 싼타페는 올 들어 전체 판매량도 그랜저에 이어 2위에 올라 있어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모델과 SUV 최초 10만대 클럽 가입이란 두 가지 타이틀을 동시에 석권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BMW 차량 화재’ 불안감...소비자외면=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BMW 차량은 2383대로, 전달(3959대)보다 39.8%가 줄었다.

1년 전 판매량(4105대)과 비교하면 무려 41.9%가 감소했다는 게 수입자동차협회 설명이다.

이따른 차량 화재 여파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520d는 ‘몰락’ 수준으로 급감했다. 520d 신규 등록대수는 107대로 7월(523대)보다 79.5%나 감소했고 베스트셀링 모델 10위권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520d는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베스트셀링 모델 10위권에서 빠지지 않았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최다판매 모델에서 빠지는 ‘굴욕’을 맛봤다. 520d의 경우 화재 관련 차량 결함이 불거지기 전인 5~6월만 해도 각각 1239대, 963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베스트셀링 모델 1위, 2위를 달리기도 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달에도 전체 신규 등록대수가 3019대로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벤츠는 올 들어 8월까지 신규 등록대수가 4만8803대로 전년도 같은 기간(4만8461대)에 견주어 0.7% 증가했다.

◇싼타페...가장 많이 팔리나=10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시된 싼타페는 지난달까지 모두 7만1451대가 팔리며 그랜저(7만5944대)에 이어 누적 판매 대수 2위에 올랐다.

두 모델의 판매량 격차는 4500여대에 불과한데, 최근 3개월간 판매량의 경우 그랜저는 ▲8945대(6월) ▲8571대(7월) ▲8905대(8월) 등 9000대에 못 미친 반면, 싼타페는 9074대(6월), 9893대(7월), 9805대(8월) 등으로 1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싼타페가 지난 3월 신차 출시 이후 판매량이 증가세인 점을 감안하면 올 해 예상 판매량 11만1000여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싼타페

6개월간 7만1451대 판매...그랜저 이어 누적 2위
국내 첫 SUV 10만대 클럽 눈 앞...‘국민차’ 도전

이렇게 되면 싼타페는 국내 자동차 역사상 최초로 연간 10만 대가 팔린 SUV란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또 그랜저 판매량을 앞지르게 되면 SUV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최초로 베스트셀링가 1위를 차지한 SUV 모델로도 기록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내수시장에서 베스트셀링가는 1999~2010년의 경우 쏘나타가 줄곧 차지하며 독점하다시피 했다.

그러다 2011~2013년에는 아반떼에 넘어갔다가, 2014~2015년에는 쏘나타가 되찾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벤츠, 전기차 출시

더 뉴 EQC ... 제로백 5.1초

메르세데스-벤츠가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을 공개했다. 최근 스웨덴에서 공개된 전기 SUV인 벤츠 ‘더 뉴 EQC’는 전기차 브랜드 EQ를 달고 나온 벤츠의 첫 차종이다. 더 뉴 EQC는 앞차축과 뒤차축에 연결된 2개의 전기모터를 통해 최고출력 408마력(300kW), 최대토크 78.0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1초다. 최신 80kWh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약 450km 이상의 주행거리(유럽 NEDC 기준)를 달성, 테슬라의 SUV인 모델X 주행거리(381km)보다 길다.



가정과 공공 충전소에서 완속(AC) 충전이 가능하고 벤츠 월박스 충전하면 가정용 220V 소켓보다 속도가 약 3배 빠르다.

최대 110kW의 출력으로 급속 충전 시에는 약 40분 이내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더 뉴 EQC는 벤츠의 독일 브레멘 공장에서 내년부터 생산돼 유럽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국내 출시 시기는 미정이다. /연합뉴스

‘피해액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정부, 리콜제도 강화...제작 결함 은폐·축소 업체 매출액의 3% 과징금

정부가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한 업체에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또 결함을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등 리콜제도가 강화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 공개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은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법적 규정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낙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제작업체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해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에 들어가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고 자료가 부실하면 1건당 500만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원)·2차

(500만원)·3차(1000만원)에 걸쳐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제작사가 일정 기간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한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같은 규정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BMW 사례처럼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 해당 차량의 판매중지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아울러 리콜 개시 후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 문자, 신문공고를 통해 계속 알리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장지까지 광주, 목포에서 30분거리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